

# “인간을 존중하는 곳에 평화가 있다”

## \_인터뷰: 한국전쟁 참전 강위조 선생

글 · 최현정 chhjung@paran.com

1930년 경남진주에서 태어난 강위조 선생님은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이후 1954년에 미국으로 가서 신학대학원 공부를 마치고 그곳에서 대학 교수로 종교학과 신학을 가르쳤다. 작년에는 소설과 희곡을 발표했다. 두 작품 속에 선생님의 삶 전체가 그득히 담겨 있다.

언젠가 <희망 세상>에 ‘인간 안에서 희망을 찾는 길’ 기사를 쓴 적이 있는데, 그 때 선생님께서 기사에 관해 따뜻한 응답을 해주신 적이 있다. 작년 크리스마스 카드를 포함해 주고받은 편지들이 늘어 나면서, 나는 선생님의 말씀을 이 공간에 꼭 실어야겠다 싶었다. 미국에 계시기 때문에 직접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 속에서, 편지로 주고받은 질문과 답장을 정리했고 지면의 한계로 조금씩 줄였다.

### 어린 시절의 기억, 고향의 풍경과 분위기는 어떠했습니까?

태어나서 자란 진주는 아름다운 산들이 둘러 서 있고 중앙에는 낙동강의 상류를 이루는 남강이 있다. 임진왜란 때 왜적과 싸운 진주성, 초석루, 북장대, 서장대가 우뚝 선 언덕에서 남강이 내려다보이는 진주는 아름다움 이상으로 깊은 인간의 삶과 역사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거룩한 배움의 고장이었다. 그 고향 마을 사람들은 민족의식이 강했고 민족과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 진주 시내를 일본인에게 내어 주지 않았다.

어릴 때 나는 독서를 많이 하는 아이였다. 주위에 책이 있으면 그 책을 꼭 읽고 말았다. 그리고 책방에 가기를 좋아하고 책방 구석에 앉아 책 읽기를 즐겼다. 나는 편이나 공부를 즐기고 지식탐구에 열정적이었던 것 같다. 음악도 좋아하고 노래를 자주 불렀다. 내가 살던 고향집 가까이 의곡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하모니카를 지니고 다니면서 노래를 잘 불렀던 꼬마친구와 함께 절 뒤에 있는 언덕과 산을 쫓으면서 노래하기를 즐기던 아름다운 기억이 있다.

일제 시대 국민학교에 다닐 때 아오노 유끼코(靑野雪子)라는 일본인 담임 선생님이 계셨다. 그 선생님은 학교에 있는 어린이 책 그리고 잡지들을 읽으라고 내게 많이 빌려주곤 했다. 그 여선생은 언제나 깨끗한 옷을 입은 천사같이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나는 그 여선생을 통해 한국을 점령하고 식민지로 만들어 착취하는 일본사람들, 일본의 대조선 정책, 외교 군사 정책은 나쁘다 하더라도 일본 사람이 모두 나쁜 사람은 아님을 믿게 되었다. 이러한 기억은 인종, 국적, 종교, 정치, 사상을 초월해서 모든 이웃을 나의 형제처럼 대하고 인격을 존경하고 살아야 할 것을 내게 가르쳤다. 내가 미국에서 대학 교수가 되어 일본에 들릴 기회에 그 여선생님을 찾아뵈려고 했지만 이미 세상을 떠나셨고 결국 다시 만나지 못했다.

**한국전쟁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1950년 6월 25일 나는 부산에 있었다. 그 때도 나는 공부하는데 열중해 전쟁의 실정에 대해서 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런데 짧은 시간에 고향 진주가 점령되었고 부산 가까운 낙동강 도하작전이 치열하게 전개 되었다. 이때 군인 징집 통지서를 받았다. 나는 우리 집의 독남이었고 건강도 좋지 않아 신체검사에 불합격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신체검사는 형식적인 것이었고 가정 사정에 대한 질문 하나 없었다.

여름 땀벌레 줄을 서 있는 신병들은 목이 말랐지만 준비된 물은 없었다. 군인은 물을 마시고 싶어도 참아야하고 오직 상관의 명령에만 복종해야 했다. 전쟁에서 인간은 도구일 뿐이었다. 하룻밤 입영소에서 지내고 다음날 새벽 일본 화물선을 타고 일본에 가서 카투사 군인으로 한 달도 안 되는 훈련을 받고 인천상륙과 더불어 최전선에 배치되었다. 한국전쟁에 참여한 미군보병의 16%에서 24%가 카투사 군인이었다. 이 중 7,140명의 카투사 군인이 사망하고 21,630명이 부상당하고 1,718명이 실종되고 1,512명이 포로가 되었다고 한다.

참전하면서 가장 슬픈 광경은 한국전쟁으로 인한 양민들의 쓰라린 고난이었다. 마을을 지나면서 자살한 시체를 많이 보았고, 눈보라치는 추운 겨울날 피난 가는 사람들의 쓰라린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어느 전쟁이고 전쟁에는 전투원이 아닌 비전투원이 전투원보다 많이 희생당한다. 국제 문제를 전쟁으로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평화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할 이유는 거기에 있다.

군인 생활을 하면서 매일 같이 죽음의 위협 속에 사는 것이 가장 고되었다. 나 자신이 죽는 것은 군인으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할 부모형제를 생각할 때

견디기 힘들 정도로 괴롭고 고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고통에도 “인간이 그렇게 쉽게 죽지 않는다”고 스스로를 타이르면서 전쟁은 곧 끝날 것이고 전쟁이 끝나면 대학으로 돌아가 열심히 공부해 훌륭한 학자가 될 것이라는 희망 속에서 힘을 얻을 수 있었다.

한국전쟁에서 사람과 세상의 사욕을 보았다. 언제나 군인들은 서로의 물건을 훔치는 일로 싸움들이 많았다. 우리가 장진 쪽에서 후퇴하면서 흥남으로 오는 도중 나의 담요와 내복이 든 보따리를 누가 훔쳐갔었다. 흥남에서 부산으로 내려오는 배 안에서 담요 없이 잠을 자기가 몹시도 추웠고 괴로웠다. 그러나 이러한 괴로운 삶의 경험은 전쟁 때문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본다.

사욕 속에서 사는 인간들이 있는 이상 이러한 고난은 어디에서나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이 복되게 살기 위해서 서로 돕고 사랑하며 사는 사회를 건설해야 될 것이다. 이웃을 믿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 사회를, 나라를, 그리고 세계를 구원할 희망이고 동력이라 생각한다. 그러한 것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며 사는 힘은 나의 신앙생활에서 우러난다.

한국전쟁 때나 지금이나 사람과 세상에 대한 나의 견해는 변한 것이 없다. 인간과 세상은 개인적이든 집단적이든 자신과 자국의 이익을 앞세우고 살아간다. 이러한 세상살이에서 희생당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가난한 나라들이다. 부자들은 땅, 기계, 생산, 분배 수단을 장악하게 될 것이다. 이럴 때 땅도 없고, 전자기계도 없고, 있어도 사용할 줄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질문에 답을 못 주는 것이 지금의 사람들이고 세상이다. 이 시대의 사람 그리고 세상은 이를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기 위해 사람들과 세상은 서로 사랑하고 도우면서 살아야한다.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가 화해하고 사는 것이 앞으로 살아나갈 삶에 대한 희망이며 소망이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나의 인생길에서 큰 감화를 준 사람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철학자 마틴 부버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알게 된 것은 그가 한국 군사 정권으로부터 추방을 당하고 미국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고 있을 때이다. 당시 그의 민주화 운동은 꽤 외로운 운동이었다. 그럴 때 민족의 앞날을 걱정하고 조국을 사랑하는 미국의 한국 유학생과 지성인들이 김대중 씨를 돕는 운동에 참여했다. 1972년과 1973년 2년 연속 내가 교수로 재직하고 있던 대학원에 재북미 기독교자회가 주최하는 연례회의 주제 강사로 김대



중 씨를 초대했었다. 그는 소박했지만 많은 책을 읽은 박식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는 조국의 분열을 슬퍼하고 남북의 분열이 한국의 근대사를 비극으로 몰고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민족 분열의 비극을 끝내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민족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조국의 통일은 하루도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마틴 부버(1878-1965) 교수는 유대인 종교 철학자로서 '대화의 철학' 사상을 발전시켜 20세기 신학과 윤리학에 크나큰 공헌을 하신 분이다. 1923년 『나와 그대(I and Thou)』라는 저서에서 인간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하나의 물건이나 도구로 취급 되는 '나와 그것(I and It)' 관계를 형성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 이유는 인간은 창조주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가 1938년 프랑크푸르트대학에서 히틀러의 폭정에 못 이겨 교직에서 추방당하고 예루살렘의 히브리대학교에 와서 사회철학 교수로 있다가 종전을 맞이했을 때에도 그는 먼저 독일 사람들을 용서해줄 것을 주장했다.

1960년에 박사학위 공부를 위해 시카고대학교를 가게 되었다. 그곳에서 부버의 책을 심각하게 공부하게 되었다. 그때 하버드대학교에서 시카고대학교 교수로 오신 폴 틸리히 교수님을 만날 일이 있어 그의 사무실을 찾아갔는데 틸리히 교수 비서가 "오늘 틸리히 교수님의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다. "왜 교수님의 기분이 좋지 않은가요?"라고 물으니 그 비서가 말하기를 "매일같이 많은 편지를 받는데 오늘은 편지 온 것이 없어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유명한 세계적인 학자로 바쁘게 지내면서도 친구, 가족, 친척들의 편지가 안 왔다고 해서 서운하게 생각하는 틸리히 교수님의 따뜻한 인정, 인간관계를 중요시하는 인격, 만남과 대화의 중요성을 그의 사상 이론과 연결시키는 그의 학문적 업적을 존경하게 되었다. 시간이 감에 따라 틸리히 교수의 종교철학, 신학사상은 마틴 부버의 책 <나와 그대>의 종교철학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나는 "모든 진실한 인생은 만남이다. 그 만남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이다. 그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대화이다. 그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 존경하는 것이다. 그 존경의 근원이 되는 것은 사랑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사랑 없는 인간사회, 세계역사는 서로 꺾고 죽이는 놀음판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부버의 '대화의 철학' 을 그의 저서 『나와 그대』를 통해 뜨겁게 만나게 되었고 그 만남을 계속하고 있다.

마틴 부버는 화해와 평화를 위해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야할 윤리철학을 발전시켰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그러한 화해 정신을 한국의 근대사에 실현시켰다. 이러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당하는 죄로 인한 고난 속에서도 살아 나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다. 이러한 화해



의 사상과 생활을 통해 인간은 세계 빈곤 문제 등 여러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소설과 희곡을 쓰게 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나의 자서전적 소설 『자장가(부제: 한 카투사 군인의 삶과 죽음)』을 출판한 계기는 한국전쟁 60주년에 한국전쟁의 비극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서이다.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내가 경험한

것을 정리해 보고 싶은 마음에서 이루어졌다. 이 책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한 군인이 겪었던 경험에 동참하면서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염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그리고 3막 7장의 희곡 <독일에 간 한국 간호원>도 이러한 화해 정신에서 쓰였다.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외국에 가서 인간이 가지는 공통된 문제를 접하면서 생기는 갈등을 화해 정신으로 해결해나가는 아름다운 인간의 일면을 극예술로 표하고 싶었다.

사람의 죽음을 빌미로 한 안보와 증오의 논리가 6월을 틈 타 다시금 마음을 괴롭히는 지금, 사람을 잃은 슬픔이 무시되는 바로 지금, 인간을 존중하는 곳에 평화가 있다는 뜻을 품은 선생님의 편지는 참으로 절실하다. 분명 선생님은 시대의 격렬한 진동 안에서 생의 처참함과 힘없는 죽음을 보았고 사람 안에 깃든 미움과 이기심도 목격했다. 그 미움에 의해 해를 입었지만, 다시금 사람을 믿고 존중하기를 선택하셨다. "어떻게 그러니까?"하고 여쭙었는데 '의무' 라는 응답이 눈에 띈다. '의무' 라는 말을 입안에 넣고 천천히 곱씹어 본다. 그리고는 선생님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강위조 선생님은 wijo@live.com으로 편지를 쓰면 만날 수 있다. 선생님의 책은 대양미디어사와 교보문고를 통해서 만나볼 수 있다.

글 최현정 | 평화로운 공동체 만들기 관심이 많은 임상심리학자. 역서에 주디스 허먼의 『트라우마』, 피터 엘사스의 『고문 폭력 생존자 심리치료』 등이 있다.